

남양건설, 2024년 종무식... 장학금 수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묵념·남양인 시상·사가 제창 마형렬 회장 “2025년 모두 합심해 회사 정상화 주력”

호남 증권기업인 남양건설(주)이 지난달 31일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가졌다.

종무식은 국민의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애도를 담은 묵념, 남양인의 상·지역인재 장학금 시상, 회장님 훈시, 사가 제창, 이무자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인의 상은 남양건설 오세천 부장(시흥은계지구 토목현장)과 김지현 대리(평택군부대 건축현장), 광주매일신문 최유리 사원, 최종훈 남양정보기술 부장 등 4명이 수상했다.

이 상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를 묵묵히 충실하게 수행하는 남양인의 근무표상을 확립하고자 제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남양문화재단이 선발한 장학생은 동성고 3학년 양성식 학생, 송원고 2학년 안도후 학생 등 지역 중·고생 20여명으로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남양문화재단은 따뜻한 인성과 청년으로서의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있으면서 학문적 역량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선발된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재 양성을 하고,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인재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원들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공모한 사내표어 최우수작에는 박예찬 대리, 우수작 문현민 사원, 가작 한경식 과장이 각각 선정됐다.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은 훈시를 통해 “2024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한 남양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마 회장은 “다만 올해 우리

가 당초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2025년에는 모두가 합심해 무엇보다 회사 정상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건설(주)은 2일 오전 본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수주 극대화와 안전문화 확립을 다짐하는 등 올해 한 해 힘찬 출발을 알린다.

/임채만 기자



남양건설(주)은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에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가졌다. 이날 남양문화재단은 지역 중·고등학생 등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에리 기자

완도해경 522함, 생명존중대상 상금 기부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522함이 생명존중대상 상금 기부를 통해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1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22함 소속 김재권 경사는 지난 2월 여서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선과 LNG선 간 충돌 사고 현장에서 동료들과 협력해 승선원 77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522함을 대표해 ‘2024년 생명존중대상’을 수상했다.

김 경사는 수상 상금의 대부분을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을 전했다. 해당 상금은 온정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 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제주항공 참사’ 지원 잇따라...경북도, 2억 기탁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전국에서 따뜻한 지원과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2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사람의 발차를 운영하고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전남자원봉사센터와 한국기독교연합회 봉사단, 대한불교조계종, 대한적십자사, 바르게살기운동, 의용소방대 등 협회·단체 등에서도 구호 물품을 나누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기숙사를 유가족 숙소로 무상 제공했다.

타 지자체 후원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에는 경북도가 위문 성금 2억원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추후 여객기 사고 수습 및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이광재 농협 담양군지부장 취임 “농업인 실익 지원”

“범농협 조직의 구심체인 군지부 역할을 강화해 농업인의 실익 지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광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53·사진)이 취임했다.

신임 이 지부장은 1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농협과 소통을 활성화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지부장은 또 “농산물 판매 확대 및 명품화,

신규 소득작목 개발 등 농업 소득 제고와 복지농촌 구현에 힘을 보태고 사회공헌 확대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며 “군민과 고객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은 무안 출신으로 전남고, 조선대 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농협중앙회에 입문해 IT 경영정보부, 무안군청 출장소장, 신탁부 신탁전략팀장, 함평군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 ‘DS전자 장학생’ 수료식

국립목포대학교 화합물반도체센터는 최근 DS전자 산학장학생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DS전자와 국립목포대가 공동으로 설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지역 인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채용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화합물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김지은(정보전자공학과 4학년)·김산들(정보전자공학과 4학년) 학생이 DS전자 인턴으로 최종 선발되며 산학협력의 성공 사례를 추가했다.

해당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며 “DS전자 인턴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생각에 기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전희석 국립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국립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가 지역을 넘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진형석 광주 평생헬스 대표, 성금 1천만원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최근 광주 평생헬스장이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홍철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진형석 평생헬스 대표, 하상도 평생헬스 관장 등이 참여했다.

진형석 평생헬스 대표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헬스는 광주지역 내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주성학 기자

라정시내버스, ‘111일 착한운전’ 우수 사원 등 포상

광주 (유)라정시내버스(대표이사 정병주)는 2024년 하반기 ‘일일 착한운전 달성’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 조와 모범사원 5명을 선정, 최근 포상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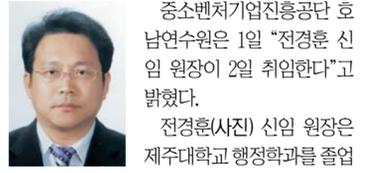
‘일일 착한운전 달성’은 111일의 캠페인 기간 동안 사고 발생, 법규 위반, 민원 발생 여부와 더불어 수입금 증대 등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운전원에게 포상하는 행사다.

정병주 라정시내버스 대표이사는 “일일 착한운전 달성 캠페인은 사고 예방 및 서비스 증대 일환으로서 라정시내버스만의 주요한 행사”



라며 “올해 1월부터 실시되는 광주시 G-패스 홍보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전경훈 중진공 호남연수원장 취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일 “전경훈 신임 원장이 2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전경훈(사진) 신임 원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 후 기술연수실, 연수운영처 등 연수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전북서부지부장, 인천서부지부장을 역임하며 현장 경험까지 두루 갖춘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경훈 호남연수원장은 “다년간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호남 지역 중소기업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지역 혁신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 미래도발리더 등 지역 주력산업을 선도할 미래 혁신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중진공의 지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슬 기자

인사

- 광주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감사관 김덕호 ▲부가가치세과장 박정국 ▲소득세과장 김현성 ▲법인세과장 채규일 ▲정보화관리팀장 김민철 ▲징세과장 정찬성 ▲납세추적과장 양석범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창현 ▲조사1과장 정완기 ▲조사2과장 송창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조사과장 문미선 ▲조사과장 유태정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형국 ▲소득세과장 김형숙 ▲재산법인세과장 장성재 ▲조사과장 김대학 ▲복합세무서 징세과장 진중기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수 ▲법인세과장 손오석 ▲조사과장 오규택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권진 ▲소득세과장 장동규 ▲재산법인세과장 김희봉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철웅 ▲군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오기범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진수 ▲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천일 ▲조사과장 변승철 ▲북전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영수 ▲진안지서장 홍기석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혁준 ▲김제지서장 장영철 ▲정읍세무서 징세과장 김현 ▲남원세무서 징세과장 이경섭 ▲세원관리과장 기연희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김은미 ▲재산법인세과장 박정환 ▲나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오 ▲부가소득세과장 조호형 ▲재산법인세과장 박숙희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애숙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문동호 ▲강진지서장 백홍교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김해곤 ▲소득세과장 배삼동 ▲조사과장 엄삼열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부가소득세과장 김경민 ▲재산법인세과장 강경진 ▲조사과장 이용혁 ▲납세자보호담당관 장민석
- ◇전산사무관 전보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지승환
- ◇직무대리 발령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숙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규

광주교통공사

- ◇전보
- ▲감사처장 김형민 ▲기획조정처장 김경재 ▲경영지원처장 이명현 ▲고객사업처장 김지훈 ▲산업안전보건팀장 박종욱 ▲문화홍보팀장 차준국 ▲역무운영팀장 노인배 ▲차량팀장 유경천

전남개발공사

- (승진)
- ◇일반1급 ▲안전감사실장 김인협
 - ◇일반2급 ▲에너지사업처장 정원주 ▲죽림사업단장 김규환
 - ◇행정3급 ▲분양보상처 김진일
 - ◇기술3급 ▲신성장사업처 박학진 ▲에너지사업처 제명신
- (전보)
- ◇일반1급 ▲사업본부장 장승호
 - ◇일반2급 ▲주거복지사업실장 임주선 ▲기획혁신처장 박정호 ▲지속가능경영담당 최희경 ▲신성장사업처장 최현석 ▲분양보상처장 신창석
 - ◇행정3급 ▲경영지원처장 이강욱 ▲만원주택사업TF담당 이승민